

“원팀으로 지방선거 필승”...민주, 호남 공천자대회 결집

강진서 공천장 수여·결의...광주·전남·전북 조직 결속 ‘공정선거 조사특위’ 가동...해당행위 엄단·무관용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 결집과 당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4시 전남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를 열

고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전남·광주·전북 시·도당위원장, 각 선거별 후보자들이 참석해 공천장을 수여받고 선거 전략을 공유한다. 후보자 소개와 결의문 낭독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자대회를 계기로 호남권 조직 결속을 강화하고,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포함한 광주·전남 주요 선거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당은 민생 대응과 지역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선 경쟁에 대비한 조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후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선거 과정에서의 내부 이타감과 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민주당은 ‘6·3 공천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당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한다. 전남도당은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당의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거나 무소속·타당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과 공직선거 후보자 등 지지위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는 방침이다. 선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탈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민주당은 공천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징계 중 당을 떠난 인사에 대해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입당 또는 복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합당을 통한 우회 복귀 가능성 역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당은 각 시·도당에 선거 기간 중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즉

시 보고 체계를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당은 당의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한 조직 결속을 유지하고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해 돌발 변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자대회를 통한 조직 결집과 함께 엄정한 기강 관리 기조를 병행하면서, 본선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변수 차단과 표 결집에 동시에 나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열린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간담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법에 따른 도·시군 체육단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남도, 행정통합 대비 장애인체육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서 전남체전과 생활체육대회 확대 운영 등 논의

전남도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법에 따른 체육 분야 대응 전략과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전남·광주 통합 추진에 발맞춰 장애인체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정

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22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양 시·도 장애인체육회 통합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 전남체전과 생활체육대회 확대 운영, 체육시설 공동 활용과 재정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우려

되는 직급 체계 차이 해소,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 장애인 체육인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건의하며, 실질적인 제도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결함을 넘어, 체육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

기는 포용적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전남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체육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체계적 체육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출근길 인사로 본선 행보 시동

서창교차로서 시민 접점 확대...“전남광주 압도적 성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출근길 인사로 나서며 본격적인 시민 접점 행보를 시작했다.

민 후보는 11일 오전 8시 광주 서창교차로에서 출근길 차량과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진행한 현장 일이다.

이날 민 후보는 “압도적 성장, 민형배는 합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민들과 만났다. 출근길 시민들은 손을 흔들거나 차량 경적으로 화답했고, 일부 시민은 자전거를 멈추고 악수를 건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민 후보가 첫 거리 인사 장소로 택한 서창교차로는 광주 서남권 주요 관문이다. 상무권과 광산권, 전남 서남부 생활권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시민들의 일상이 맞닿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상징성을 부



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남과 광주는 행정구역상 나뉘어 있지만 시민의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는 통합으로 전남 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 출범으로 전남광주 대전환을 이끌 조직의 틀을 갖췄다. 첫 출근길 인사는 시민 속에서 그 비전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곡성군수 선거 야권후보, 혁신당 ‘단일화’

민주당 조상래 vs 조국혁신당 박용두 ‘맞대결’

6·3 지방선거 전남 곡성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용두 (사진)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용두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캠프는 11일 “이성로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박용두 예비후보가 곡성군수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이성로 후보는 박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된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비리 의혹과 무능한 군정에 맞서, 무너진 곡성의 자존과 미래를 바로 세우야 한다”며 “더 이상 낮은 정치와 책임 없는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성사로 곡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혁신당 박용두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차영수, 여성 권리보호·일자리 공약 발표

“여성 일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 동시 보장”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사진)가 여성 고용 확대와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며 생활밀착형 정책 경쟁에 나섰다.

차 후보는 11일 “여성이 안심하고 일하고, 부담한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여성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했다. 직업훈련부터 재취업, 일자리 창출, 농어업 현장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청년, 결혼이민 여성 등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논스톱 여성취업지원 체계’를 도입해 직업상담과 맞춤형 훈련, 자격취득,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을 일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도 포함됐다. 돌봄과 로컬푸드, 관광, 문화해설, 디지털 행정지원, 마을공동체 운영 등과 연계한 ‘강진형 여성 뉴딜 일자리’를 통해 단계 고용에 그치지 않고 경력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사회 대응 방안도 내놴다. 차 후보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공직사회부터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윈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무관용 징계를 병행한 ‘논스톱 여성취업지원 체계’를 도입해 직업상담과 맞춤형 훈련, 자격취득,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청년캠퍼 참여자 선별 광주시, 내달 7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청년들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와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캠퍼 사업’을 추진한다.

‘캠퍼 (Gap Year)’는 학업이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행, 봉사, 교육,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와 가치관을 탐색하는 시간을 뜻한다. 광주시는 ‘청년캠퍼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11월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 (최대 4인)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 신청은 모든 팀원이 각각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아르케 누리집 (www.big-tree.kr)을 통해 접수하며, 프로젝트 계획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참여자 30명을 선별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선정된 참여자에게 1인 최대 140만원의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며, 팀은 팀원 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숙박비, 교통비, 프로젝트 실행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상담과 진로·직무 탐색,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

안도걸 “가상자산 1000만 시대...안정성 강화해야”

“최근 6개월 가상자산 투자자 수 7%·보유금액 38% 감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사진)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2022년 587만명에서 2025년 8월 1099만명으로 3년 만에 8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보유금액도 17.6조원에서 111.7조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됐

다. 특히 70대 이상 투자자 수는 3만 명에서 11만6000명으로 3.9배 늘었고, 보유금액은 1902억원에서 2조5395억원으로 13.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는 1022만명으로, 6개월 전인 2025년 8월 대비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보유금액 역시 69.9조원으로 37.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투자자가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2월 기준 투자자 수 증감률은 20대 이

하 △13.4%, 30대 △7.8%, 40대 △6.1%, 50대 △3.8%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는 0.5%, 70대 이상은 5.8% 증가하며 고령층 투자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디지털자산이 이미 국민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며 “시장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무소속 한계?...정당보다 중요한 건 실력”

노관규, 민선8기 예산 19% 증가...국도비 47% 확대 강조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진)가 민선8기 재정운영 성과와 관련해 “순천은 두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했고, 이재명 국민권증부 들어 순천 예산은 전남 1위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예산은 간판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행성의 실행력, 시장의 추진력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순천의 재정 성장은 지난 4년간 준비된 사업과 검증된 행정역량이 만

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 측에 따르면 순천시 총예산은 2021년 최종 기준 1조6307억원에서 2025년 최종 기준 1조9450억원으로 4년 만에 3143억원 (19%) 증가했다. 특히 2026년 본예산 기준 순천시는 1조5669억원을 편성해 전남 시 단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여수보다 855억원, 광양보다 4130억원 많은 수준이다.

국도비 확보 규모도 크게 늘었다. 순천

시 국도비 확보액은 2022년 5166억원에서 2026년 7583억원으로 4년 만에 2417억원 (47%) 증가했다.

노 예비후보는 “정부가 바뀌어도 순천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순천이 준비된 사업의 논리와 실행력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나 지역보다 성과와 준비된 역량을 중시하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순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남 예산 1위 도시로 올라선 것은 순천의 실력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x@gwangnam.co.kr